

#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 Family Stress, Work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Men and Women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이형실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Lee, Hyongsil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on work stres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and work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men and women. The analy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based on a sample of 263 full-time employed men and 258 full-time employed women aged 30-49 in dual-earner families.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tress,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women reporting higher levels of stress. However, employed men and women experienced similar levels of work stress.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stress in the family domai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work stress. Both marital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s of work stress for employed men and wom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marital stress and work stress were predictive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men an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Among employed women, marital stress and work stress were more high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among employed men.

◆ key word: 가족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 취업여성, 기혼남성

## I. 서론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여성취업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직업 스트레스와 갈등에 관한 연구, 또한 이들 요인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촉진시켰다. 이에 대한 연구(Burke, 1993; Hughes & Galinsky, 1994; Macewen & Barling, 1988) 결과들은 가족과 직업간 갈등과 결혼만족 및 심리적 건강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남성과 여성은 가족과 직업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의 주요역할은 부인과 어머니 역할이며, 반면 남성의 주된 역할은 부양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가족과 직업 경험에서의 성 차이는 가족역할에 대한 책임 수준의 차이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취업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가족역할을 맡고 있으며 가족과 직업 역할간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가족과 직업생활을 함께 병행하는 문제는 남성과는 상관없는, 여성의 문제로 가정되어 왔다. 맞벌이 부부가족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Spain과 Bianchi(1996)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직업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만의 문제로서 보여져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또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한 광범위한 구조 조정의 결과로 초래되는 직업환경의 변화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직업영역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가족과 직업생활간 관련성에 초점을 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크다. 가족과 직업간 관련성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직면하는 도전으로 보여진다.

가족과 직업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과 직업 영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직업생활에서의 경험을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점차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족과 직업

영역간 상호의존성은 한 영역에서 경험된 스트레스가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과 직업간 상호작용의 역기능적 결과를 강조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만족간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관련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가족생활도 역시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취업 여성과 남성에서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기혼 여성의 민감성은 기혼여성의 심리적 우울감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족 경험보다는 직업 경험이 더 중요하며, 여성의 경우 직업 경험보다는 가족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Barnett, 1997; Windle & Dumenci, 1997)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가족경험과 직업경험의 영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차이에 대한 이러한 가정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한편, 기혼 남성과 여성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 본 연구는 별로 없다. 특히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 가족의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관계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규명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에서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영역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그리고 직업영역에서 직업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과 직업역할

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과 직업생활을 통합적으로 보며 가족과 직업 양쪽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가족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의 관련성

최근 들어 가족과 직업생활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연구들은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왔다. Kinnunen 등(1996)의 연구에서 직업 스트레스는 가족 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족 영역에서 직면하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Barnett(1994)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서의 긴장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 생활 만족과 부부관계 만족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Barling과 Macewen(1992)의 연구에서는 직업 경험과 부부관계 기능성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에서의 경험은 또한 직업영역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경험이 직업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별로 없으나, Forthofer와 Markman(1996)의 연구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남성의 직업 상실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ttewell(1999)은 이혼자와 편부모에서 실직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Pleck(1977)은 가족이 직업역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직업역할이 가족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불균형적 침투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에게는 가족의 요구보다는 일이 우선이며 여성에게는 일보다는 가족의 요구가 우선이라고 가정한다면, 남성의 경우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의 요구가 직업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enbrunsel 등 (1995)의 연구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직업과 가족생활간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이 직업생활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련연구들을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2.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많은 연구들은 가족과 직업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왔다. 먼저 가족생활 경험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영향을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심리적 긴장을 예측하는 유력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Simon, 1998). 한편, 부모 역할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ird, 1997; McLanahan & Adams, 1989).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역할의 긍정적 경험과 부담 및 책임 모두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전의 연구들은 특히 직업역할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는데, 직업역할에서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에서도 직업역할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연구들은 맞벌이 부부에서 직업스트레스와 우울감간 관계의 동일성을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Barnett & Brennan, 1995)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긴장과 관련이 있었다. Barnett(1993)도 역시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직업 역할의 질과 심리적 스트레스간 부적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즉, 직업 역할의 질과 심리적 스트레스간 관계에서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가족과 직업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남성은 가족 스트레스보다 직업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반면, 여성은 직업 스트레스보다 가족 스트레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Windle과 Dumenci(1997)의 연구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가 남편과 부인의 우울감을 똑같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족의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한 Barnett(1997)의 연구에서 부부, 부모, 직업 역할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보면, 기혼 취업 여성의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이 함께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도 별로 없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는 차이가 있는가?
- 2)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직업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및 인접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족의 30-40대 기혼 취업여성 258명과 기혼 남성 263명이었다. 각 학교의 학부모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기혼 취업여성의 평균 연령은 38.0세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이 40.9%, 고졸이 35.8%이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12.5년, 자녀수는 평균 2.0명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398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은 전문직이 26.0%, 사무직이 23.2%, 자영업이 17.3%, 생산직 등이 19.0%이었다. 기혼 취업남성에 비해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았으나 자영업이나 서비스직 등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높았다.

기혼 취업남성의 평균 연령은 38.5세였으며, 대졸 이상이 78.9%로 교육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남성의 결혼 기간은 평균 10.9년, 그리고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었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376만원이었다. 기혼취업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이 51.0%, 전문직이 28.5%, 자영업이 9.9%으로 구성되었다.

#### 3. 조사도구

부부관계 스트레스 척도는 신기영(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총 5문항(예: 내 배우자는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범주를 가졌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남성의 경우 .66, 그리고 여성의 경우 .67이었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Marshall & Barnett, 1993)를 토대로 총 5문항(예: 자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성	여성
연령	30대	157 (59.7)	164 (63.6)
	40대	106 (40.3)	94 (36.4)
교육수준	국졸	5 ( 1.9)	3 ( 1.2)
	중졸	4 ( 1.5)	35 (13.8)
	고졸	45 (17.3)	91 (35.8)
	대졸	176 (67.7)	104 (40.9)
	대학원이상	29 (11.2)	21 ( 8.3)
직업	전문직	75 (28.5)	66 (26.0)
	사무직	134 (51.0)	59 (23.2)
	자영업	26 ( 9.9)	44 (17.3)
	서비스직	4 ( 1.5)	28 (11.0)
	생산직 등 기타	24 ( 9.2)	48 (19.0)
자녀수	1명	91 (35.0)	62 (24.1)
	2명	122 (46.9)	119 (46.3)
	3명	32 (12.3)	58 (22.6)
	4명이상	10 ( 3.9)	13 ( 5.1)

녀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집단에서 .74, 여성집단에서 .76으로 나타났다.

직업 스트레스는 Pearlin과 Schooler(1978)가 만든 척도를 참고로 하여 직업역할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5문항(예: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갈등이 많다)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62와 .5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란 개인의 생활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주관적 평가이다(Bryant & Veroff, 1982). 심리적 복지는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수정, 축약한 5점 Likert형의 총 10문항(예: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심리적 복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90이었다.

####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간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영향, 그리고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간 차이

먼저,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간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사용하였다(표 2).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

에서 기혼남성과 여성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혼 취업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심리적 복지 수준도 낮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음을 밝힌 선행연구(Menaghan, 1989; Pugliesi, 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유사한 수준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밝힌 최근의 연구 결과(Berry & Jones, 1995)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취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역할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혼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혼남성과 여성의 직업스트레스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은 직업생활에서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Phillips-Miller, Campbell, & Morrison, 2000)에서도 직업스트레스나 직업만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간의 상관계수(표 3)를 통하여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표 4),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 집단 모두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직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직업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업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효과의 강도는 기혼 여성과 남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스트레스보다는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보다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와 더 높게 관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

〈표 2〉 변수들의 평균점수

	남성			여성			t
	M	SD	범위	M	SD	범위	
부부관계 스트레스	11.23	3.00	5-24	11.89	3.58	6-22	-2.29*
부모역할 스트레스	13.24	3.29	5-22	14.43	3.79	5-24	-3.81**
직업 스트레스	13.47	2.74	5-21	13.55	2.81	5-21	-.33
심리적 복지	38.24	6.60	10-50	35.74	7.17	10-50	4.11***

\*p < .05 \*\*p < .01 \*\*\*p < .001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1. 부부관계 스트레스	1.00	.35***	.31***	-.42***
2. 부모역할 스트레스	.23***	1.00	.26***	-.24***
3. 직업 스트레스	.26***	.41***	1.00	-.30***
4. 심리적 복지	-.46***	-.24***	-.35***	1.00

대각선 위는 남성집단에서의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는 여성집단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p < .05 \*\*p < .01 \*\*\*p < .001

〈표 4〉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성		여성	
	$\beta$	b	$\beta$	b
부부관계 스트레스	.25***	.23	.18**	.14
부모역할 스트레스	.18**	.14	.36***	.27
R <sup>2</sup>	.12		.19	

\*p < .05 \*\*p < .01 \*\*\*p < .001

사대상자의 연령이 30대와 40대로 이 시기에 자녀를 돌보는 부모역할이 많이 요구되며 또 맞벌이 부부가족에서 기혼 취업여성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직업생활을 함께 병행하지만 남성보다 부모역할의 실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스트레스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직업생활의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기혼 남성(12%)에 비해 취업여성 집단(1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 집단모두에서 가족 스트레스는 직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가족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 변수간의 상관계수(표3)를 통하여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 스트레스보다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McLanahan & Adams, 1989; Umberson, 198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보상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 스트레스도 기혼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 집단에서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 변량의 26%를 설명하였으며, 기혼 남성 집단에서는 심리적 복지 변량의 20%가 이들 두 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는 기혼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족 경험보다 직업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일치하

〈표 5〉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남성		여성	
	$\beta$	b	$\beta$	b
부부관계 스트레스	-.35***	-.77	-.39***	-.78
부모역할 스트레스	-.07	-.14	-.04	-.07
직업 스트레스	-.17**	-.40	-.23***	-.59
R <sup>2</sup>	.20		.26	

\*p < .05 \*\*p < .01 \*\*\*p < .001

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 직업 경험보다 가족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하다는 가정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혼 여성의 가족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부모 역할이므로 본 연구에서 기혼 여성 집단의 경우 역시 일반적인 가정(Greenberger & O'Neil, 1993)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전의 연구들은(Menaghan, 1989; Pugliesi, 1995)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기혼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기혼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을 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스트레스, 특히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시 심리적 복지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0, 40대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즉, 기혼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직업 경험을 통합해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 스트레스는 부부관계 스트레스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혼남성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보다는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직업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기혼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에 상관없이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업 스

트레스도 기혼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직업 경험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스트레스는 직업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업 스트레스와 함께 심리적 복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 취업여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기혼 남성과 여성의 역할경험은 점차 유사해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oydanoff(1993)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과 직업 문제를 취업여성의 남편에게만 영향을 주는 여성의 문제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가족과 직업 문제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볼 때, 맞벌이 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함께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가족내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기술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들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도 가족 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기혼 취업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경험하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과 직장 상황이 비전문직의 기혼여성과는 다르므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경험이 직종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직종에 따른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 가족에서의 남편과 부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여 맞벌이 부부 가족에서



남편과 부인의 가족과 직업경험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과 직업생활 경험의 관련성이 가족생활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규명해야 한다. 가족과 직업 생활을 통합적으로 보며 남편과 부인의 경험을 함께 이해하는 관점이 가족과 직업 양쪽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ttewell, P.(1999). The impact of family on job displacement and recover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56, 66-82.
- Barling, J., & Macewen, K. E.(1992). Linking work experiences to facets of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573-583.
- Barnett, R.C.(1993). Multiple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handbook of stress*(Eds). Free Press.
- Barnett, R.C.(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arnett, R.C., & Brennan, R.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 259-276.
- Bird, C.E.(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s of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09-823.
- Forthofer, M.S. & Markman, H.J.(1996).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distress and work loss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97-605.
-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Kinnunen, U., Gerris, J., & Vermulst, A.(1996). Work experiences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 McLanahan, S., & Adams, J.(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68, 124-146.
- Menaghan, E.G.(1989). Role chang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tion in effects by gender and role repertoire. *Social Forces* 67, 693-714.
- Pearlin, L.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hillips-Miller, D.L., Campbell, N.J., & Morrison, C. R.(2000).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stress, and spousal suppor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7, 16-30.
- Pleck, J.H.(1977). Work and the 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10, 77-87.
- Pugliesi, K.(1995). Work and well-be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6, 57-71.
-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petti, R.L., Matthews, K.A., & Waldron, I.(1989).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Effects of paid employment on wom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394-1401.
- Tenbrunsel, A.E., Brett, J.M., Maoz, E., Stroh, L.K., & Reilly, A.H.(1995). Dynamic and static work-family relationships. *Organizational Beha-*

-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233-246.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99-1012.
- Voydanoff, P.(1993). Work and family relationships. In *Family relations*. Sage.
- Windle, M., &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